

우울의 근원과 그 대응 양상: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 유 진*

I. 서론

한강은 1970년 광주 출생이며, 아버지는 소설가 한승원이다. 광주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그녀의 아버지를 따라, 광주에 9년 동안 살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79년 서울로 이사를 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단편소설 「붉은 닻」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지금까지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검은 사슴』(1998),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바람이 분다, 가라』(2010), 『희랍어 시간』(2011), 작품집 『여수의 사랑』(1995), 『내 여자의 열매』(2000), 『노랑무늬영원』(2013), 연작소설집 『채식주의자』가 있다. 바로 최근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친척들과 지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 간접 체험을 토대로 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발표했다.

한강은 자신이 본격적으로 문학에 열중하기 시작한 것이 사춘기 시절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소설과 시를 통해 나는 누구이며, 사람은 왜 살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사춘기가 끝나갈 무렵 그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써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등단 후 20여 년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재학

‘글쓰기를 통해, 나는 계속 으깨어지며 나아가고 싶다. 그 으깨어짐이 내 삶을 끝까지 관통해 주기를 빌고 있다. 생생하게. 절실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렇게 온몸으로 던져내는 질문들이 곧 그 대답일 수 있음을 어렵듯이 느낀다.’¹⁾

한강은 글을 통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가리켜, ‘으깨어지며 나아가는’ 것이라 칭한다. 이를 통해 한강이 작품을 통해 그려내는 삶의 모습이 결코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달픈 삶과 그로 인한 우울한 모습을 보이며, 현실의 삶이 가진 불행하고 잔혹한 면을 끌어안고 고통에 몸부림친다. 한강은 이러한 우울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날것 그대로의 고달픔을 작품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처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대답을 구축해 나간다.

본고에서는 단편작 「여수의 사랑」(1995)과 「내 여자의 열매」(2000),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2007)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의 정서가 인물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근원을 추적하며, 인물들이 우울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작가 한강이 소설 속에서 형상화시키고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다.

II. 한강의 소설 속 우울한 인물들

1. 병적인 인물들: 우울의 표출

한강의 작품을 지배하는 공통된 정서는 바로 우울이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섬세하고 불안정하며, 상처받기 쉽고, 병약하다. 이러한 그들의 우울한 심리 상태는 병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여수의 사랑」의 정선은 심한 결

1) 2005년 이상문학상 대상 문학적 자서전에서 인용.

벽증과 위경련을 앓고 있다. 강박적으로 손을 씻어내고 토약질을 하는 정신의 병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기혐오가 내비친다.

나는 혈떡이며 증얼거렸다.

더러워,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구요.

그날 저녁 나는 언제나처럼 설 새 없이 싱크대로 달려가서 손을 씻었었다. 손이 청결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했다. 손가락 끝이 우툴두툴하게 붙어 오를 때까지 비눗물로 문지르고 닦아대다가 나는 기어 이 토약질을 하고 만 것이었다.²⁾

「내 여자의 열매」에서, 도시 생활을 두려워하던 아내는 아파트에 쉬이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병치레를 하며 생기를 잃어간다. 이러한 아내의 병적 증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멍이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타나던 멍은 점점 크고 진해지면서 온 몸을 뒤덮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는 바싹바싹 말라 가면서 조금씩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곳 상계동 아파트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한 첫 해에 아내는 과연 자주 잔병을 앓았다. (중략) 그녀의 몸은 쉽사리 원기를 잃었다. (중략) 몸이 자주 아픈 탓이었겠지만, 좁은 어깨를 시든 배춧잎처럼 늘어뜨린 채 배란다 유리문에 뺨을 붙이고 서서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³⁾

지난봄만 해도 갓난아이 손바닥만했던 피멍들이 이제 큼직한 토란잎처럼 부풀어 있었다. 게다가 멍의 색깔이 그때보다 진해졌다. (중략) 제법 윤기가 있었던 머리 카락은 마른 시래기처럼 푸석푸석했다.⁴⁾

“배도 고프지 않아. 물은 예전보다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밥은 반공기도 못 먹어. 그렇게 안 먹으니 위액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 같아. 억지로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아무데서나 토약질을 해. (중략) 머리가.. 오른쪽 눈이 후벼파는 것처럼 아파. 어깨가 나무토막처럼 딱딱해지고, 입에 단물이 고이고, 노란 위액이 보도블록에, 가로수 밑동에..”⁵⁾

2) 한강, 「여수의 사랑」,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p.12.

3) 한강,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pp.223-225.

4) 위의 책, p.220.

「채식주의자」에 이르러서는 우울의 표출 양상이 훨씬 더 과격해진다. 영혜는 병적으로 육식을 거부하며 앙상하게 말라 가고, 이상한 행동들을 연쇄적으로 보이며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빚는다. 영혜가 이렇듯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 시점은 그녀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영혜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죽이고 피를 보는 꿈을 꾸며, 꿈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작가는 영혜의 독백을 별도의 문단으로 분리하여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영혜의 병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⁶⁾

다시 꿈을 꿔. (중략) 이번 꿈이 처음이 아니야. 무수히 꿔던 꿈이야. 술에 취하면 예전에 취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처럼, 꿈속에서 지난 꿈 생각이 나. 수없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어. 가물가물한, 잡히지 않는.. 하지만 소름끼치게 확고한 느낌으로 기억돼.⁷⁾

이제는 오븐 이상 잠들지 못해. 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⁸⁾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불안정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적인 행위로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의 정서와 병적인 행위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울의 정서는 ‘상실’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상실에 반응하는 방식을 슬픔과 우울증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울의 정서는 슬픔과는 달리, 상실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슬픔의 감정은 상실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철회되어 새로운 대상에게 전위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반면 우울은 그 대상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비

5) 위의 책, p.221.

6)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27.

7) 위의 책, p.36.

8) 위의 책, p.43.

도가 다른 대상을 찾는 대신 자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울증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대상에게 적대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징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본래 대상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한다. 이 때 자기 자신이 대상의 상실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며, 그 일환으로 질병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병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⁹⁾

그렇다면 이 관점을 토대로 할 때, 작품 속에서 관찰되는 인물들의 병적 행위는 무언가의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상실의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이 자기 징벌의 일환으로 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한강은 여기에 ‘트라우마’라는 속성을 부여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본래의 평범한 일상 속에 억눌려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계기로 표출되어 인물들의 병적인 증세를 불러일으키고, 일상 생활 속으로 범람하며 지금까지의 일상에 균열을 낸다.

2. 병적 트라우마와 내면 파헤치기: 우울의 근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등장인물들의 병적 행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기인하며, 이는 무언가의 상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실이 그들에게 병적인 행동을 불러온 것일까?

「여수의 사랑」에서 정선이 결벽증을 보이는 원인은 여수에서의 유년기에 있다. 어렸을 적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다가 동생의 손을 뿌리친 기억은 정선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죄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선은 여수에서 동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고향까지 전부 잃고 떠난 셈이다. 동생을 죽게 만든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고, 결국 그 화살은 정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 동생을 뿌리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손은 정선에게 더럽고, 없애야 할 자기부정의 근원이다. 정선이 이미 씻은 손을 통통 부어오를 때까지 몇 번이고 씻고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일부러

9)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pp.461-462 재인용.

토악질을 하는 강박적인 모습은, 가족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죄책감의 또 다른 형태이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몸부림이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수가 고향이라고 하는 자흔에게서 정신은 여수의 냄새를 맡고, 급기야 모든 사물에서 여름의 여수에서 나는 것과 같은 썩어가는 냄새를 맡기에 이른 다.

손을 씻고 싶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여태껏 삼켜온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싶었다. 별장계 열이 오를 때까지 나는 두 손바닥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동생 미선의 파스한 손바닥. 내가 뿌리쳐버린 손바닥의 온기가 내 불붙는 듯한 머릿속을 헤집었다.

언니, 같이 가. 아, 아부자...!¹⁰⁾

급기야 나는 모든 사물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맡기에 이르렀다. (중략) 밖에서 돌아온 자흔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문고리를 잡으면 나는 기어코 비눗물로 그것을 닦아내야만 했다. (중략)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위와 눈병과 콜레라보다도 나를 괴롭혔던 것은 자흔에게서 풍겨오기 시작한 여수의 냄새였다.¹¹⁾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삶은 유년기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환둥이에 대한 기억이다. 아버지로 대변되는 폭력적이고 육식적인 삶을 거부했던 영혜에게 환둥이의 죽음은 자신 역시 폭력에 가담하고 환둥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의식을 남긴다.

개에 물린 상처나 나오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란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¹²⁾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끌려 다니다가 죽는 환둥이의 회반덕거리는 핏물 고

10) 한강, 「여수의 사랑」,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p.52.

11) 위의 책, pp.42-43.

12)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53.

인 눈은, 남편에 의해 성인이 된 영혜의 꿈 속에 다시 되살아난다. 혼동이 가 오토바이에 이끌려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했듯이, 영혜 역시 남편의 재촉에 이끌려 다니며 급박함을 느낀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아침이면 출근하는 남편의 식사를 챙겨 주고, 때때로 아르바이트나 보조강사 일을 하면서 가계에 보탬을 주고, 말수가 적어 남편과 부부싸움도 하지 않는 평범한 아내이다. 하지만 남편은 애정보다는 사무적인 태도로 영혜며, 늘 바쁘다며 그녀를 채근하기만 한다. 출근하던 남편이 영혜를 채근하던 어느 날 아침, 허둥대던 영혜는 실수로 이가 나간 칼조각을 불고기에 넣어버린다. 분노에 찬 남편의 고함소리를 들은 그날 아침 이후, 영혜는 꿈을 꾸다 헛간 속의 파웅덩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¹³⁾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는 고립된 공간에 평생 갇혀 사는 것을 거부하여 집을 떠난다. 자유롭게 온 세상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죽는 것은 아내의 어릴 적부터의 꿈이다. 이를 가리켜 아내는 ‘피를 갈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아내의 꿈을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으로 치부한다. 나와의 결혼과 함께, 도시에 정착하면서 자유를 갈망하던 아내의 소망은 불가능한 소망이 된다. 낯선 사람들과 소음으로 가득 찬 삭막한 도시 속에서 고립된 아내에게는 달아날 수 없는 결혼 생활, 그 공간 자체가 고통이고 트라우마이다.

인구 칠십만이 모여 산다는 거기서 천천히 말라죽을 것만 같아. 수백 수천 동 똑같은 건물에, 칸칸마다 똑같은 주방에, 똑같은 천장에, 똑같은 변기, 욕조, 베란다, 엘리베이터도 싫어. 공원도, 놀이터도, 상가도, 횡단보도도 다 싫어. (중략) ...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 같은 말이야. 그 십삼층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은 말이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말이야.¹⁴⁾

13) 위의 책, p.27.

아내가 꿈꿔왔다는 자유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것을 위해 그녀가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들 역시 어린아이 같은 것,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¹⁵⁾

어머니, (중략)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중략) 나는 한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중략) 왜 가지 못했을까요, 병신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¹⁶⁾

어머니와는 다른 삶을 살면서 ‘피를 갈’고자 했던 아내의 삶은 남편에 의해 부정된다. 아내는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며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마음을 달래는데, 화분들이 더러운 비가 내리는 시끄럽고 답답한 도시에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 ‘더러운’ 빗물을 아내의 얼굴에 뿌려 버린다. 「채식주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재된 트라우마가 남편에 의해 발현된 셈이다. 이 날 이후로 아내는 말수를 잃고 안색이 변해 간다. 아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을 부정하는 남편에 의해 아내는 소망했던 이상적 삶을 상실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자유를 누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실의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상실감은 아내의 내부로 향해 우울의 원인이 되고, 피멍과 식욕 부진 같은 병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모두 과거에 무언가를 상실한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상 생활 속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표출되어 병적인 형태로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 이는 그들이 상실의 아픔을 돌릴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선에게는 돌아갈 가족이 없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없는 영혜는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고, 아내는 환상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삶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한강은 인물의 병적 행동을 조심스레 주시하되 그 심연을 비집고 들어가 그 트라우마의 기원을 추적하고, 상처를 낱알이 파헤쳐 응시하며, 그 내면을 어루

14) 한강,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p.223.

15) 위의 책, pp.224-225.

16) 위의 책, p.237.

만지는 데에 집중한다. 내면의 소리는 회상을 통한 직접적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여수의 사랑」), 꿈으로 표현되기도 하며(「채식주의자」), 별도의 편지나 노트(「내 여자의 열매」)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¹⁷⁾

Ⅲ. 일상의 탈출: 우울에 대응하는 양상

등장인물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현재의 우울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들은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한 각기 다른 대처 방식을 보이는데, 이는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점점 더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난다.

1. 타자를 통한 트라우마의 외면화: 「여수의 사랑」

「여수의 사랑」에서, 성격도 살아온 삶도 전혀 다른 자흔과 정선의 공통분모는 바로 여수다. 정선은 동생과 가족을 잃고 고향을 버렸으며, 자신의 출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자흔은 자신의 고향을 여수라고 여긴다. 두 사람에게 있어 여수는, 가족의 결손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피로함’이 형상화된 공간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흔과 정선은 여수를 매개로 한 분신 관계와도 같다.

자흔과 나의 생활은 한마디로 물과 기름 같은 것이었다. 언젠가 우리들의 자취방을 찾았던 선배 하나는 ‘두 사람이 꼭 자매처럼 닮았구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우리 두 사람이 오직 한 가지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피로한 기색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⁸⁾

자신의 고향도 정확히 모른 채, 단순히 자신이 버려졌던 기차가 여수발 서울행 기차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수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자흔의 모

17) 김선희,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의 변화 양상」,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3, pp.49-50.

18) 한강, 「여수의 사랑」,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p.24.

습은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정치 없이 떠도는 정선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다. 정선이 자흔에게서 여수 바다의 냄새를 맡고 토약질을 하며 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한편, 자흔의 손에 의해 위경련을 치료받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선에게 있어 자흔은 여수라는 공간에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우울을 외면화한 존재와도 같은 것이다. 친모에게 버림받은 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흔의 모습을 통해 정선은 자신의 상처를 다시금 마주보고, 고향인 여수를 떠올린다.

방금 목욕을 하고 들어온 자흔의 젖은 머리털에서 나는 여수 앞바다의 찢물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손에서도 입에서도 여수 선착장에 버려진 상한 생선들의 냄새가 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흔의 잠든 얼굴에 그곳 부두의 검붉은 노을이 어리어 있는 것을 보았다. (중략)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토해냈던 무시무시한 기침 소리가 자취방의 벽면을 타고 음습한 메아리를 울렸다.¹⁹⁾

… 내가 뭘 잘못했나요?

자흔이 더듬거리며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격한 동작으로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외쳤다.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이를 악물며 나는 분명한 말씨로 덧붙였다.

더러우니까.²⁰⁾

이처럼 자신의 우울을 인격적으로 형상화한 자흔을 통해, 정선은 고통스럽지만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마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흔이 곁을 떠난 이후, 정선은 우울한 일상에서 벗어나 비로소 과거 가족의 상실에서 비롯된 오랜 상처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랫동안 떠나 왔던 여수로 향한다. 이는 타자를 통해 치유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제시하려고 한다는 자기인식의 능동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²¹⁾

19) 위의 책, p.43.

20) 위의 책, p.43.

21) 강계숙, 「‘되습’의 고통과 우울의 내적 형식」,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pp.289-291.

내일 오전 열 시 삼십오 분발 통일호 … 여수까지 한 장이요. (중략) 그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울부짖듯이 그에게 ‘여수!’ 라고 외쳤던 것이었다.²²⁾

선배의 집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후배는 출장 중이라고 했다. 모두가 통화 중이었고, 모두가 자리를 비웠고, 모두가 바빴다. (중략)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남아 있지 않았다.²³⁾

그녀의 부재를 확인할 때마다, 내 더러운 손바닥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욕지를 느꼈다. 내가 뿌리친 자흔의 손, 그녀가 가지런히 허공에 펼쳐보이곤 했던 열 손가락들이 내 수많은 혈관들을 비집고 살갗 속으로, 숭숭 구멍 뚫린 뺨속으로 파고들었다.²⁴⁾

2. 식물 되기와 폭력의 거부: 「내 여자의 열매」, 「채식주의자」

「여수의 사랑」에서 정선의 태도는, 타인을 통해 자기 응시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우울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 타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수동적인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²⁵⁾ 반면 「내 여자의 열매」와 「채식주의자」에서는, 일상을 탈출하고자 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개된다. 이는 한강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소재 중 하나인 바로 ‘식물’과 연관이 있다. 식물의 속성은 「내 여자의 열매」에서 변주를 거쳐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까지 이어진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도시에서의 결혼 생활은 자유롭게 떠돌고 싶은 아내를 구속하는 폭력과도 같다. 남편인 나 역시, 도시 생활을 힘들어하고 시름시름 앓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권태로운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식물이 되는 것이었으며, 아내의 몸에 푸른색의 멍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변신의 전조이다. 결국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아내는 완전히 식물로 변신하는데, 이러한

22) 한강, 「여수의 사랑」,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p.54.

23) 위의 책, p.55.

24) 위의 책, p.57.

25) 강계숙, 앞의 글, 291.

환상적인 설정은 일상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아내의 강력한 의지와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정작 인간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고 식물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갈망했던 식물적인 삶을 성취했음을 깨닫는다. 늘 잔병치레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토약질을 하던 아내는, 자신을 구속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던 남편은 오히려 식물이 되어 버린 아내를 예전보다 더 살뜰하게 돌본다. 「여수의 사랑」과는 달리,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것을 초월해 버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내의 번득이는 초록빛 몸이 내 물세레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여 주는 체머리를 떨었다. 내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²⁶⁾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와 거기 나를 심어주었어요.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앉아 진딧물도 잡아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텃산 약수를 길어 와서 내 다리에 부어준답니다. 비가 내린 다음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어준답니다.²⁷⁾

이상하지요 어머니.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요. (중략)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제 곧 생각할 수도 없게 되려하는 걸 알지만, 나는 괜찮아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꿔왔어요.²⁸⁾

『채식주의자』의 영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식물에 가까운 상태로 변화해 간다. 1부작 「채식주의자」에서, 영혜는 고기 먹기를 거부하고 가족으로 된 온갖 물건들까지 거부한다. 가족들은 억지로 영혜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시도하지만, 육식을 거부하고 차츰차츰 야위어 가던 영혜는 결국 정신 질환을 얻게 된다. 2부작 「몽고반점」에서 영혜의 엉덩이에 아직 남아 있는 몽고반점은 예술가인 형부의 애육과 예술적 영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몸에

26) 한강,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p.234.

27) 위의 책, p.235.

28) 위의 책, p.236.

꽃을 그린 채 금기를 넘은 두 사람은 결국 영혜의 언니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끌려간다. 3부작 「나무 불꽃」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혜는 아예 거식증 환자가 되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리고 병원이 위치해 있는 숲 속에서, 나무의 삶을 동경하고 물구나무를 서며 나무가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식물 되기’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적극적으로 식물이 되고자 하는 영혜의 행위는 몽고반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005년 연작 2부작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을 때, 한강은 몽고반점을 ‘인간의 몸에 깃들어 있는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²⁹⁾ 고 했다. 몽고반점이 보통 신생아가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태초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잊음을 의미한다. 어른이 된 영혜에게 아직 몽고반점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태고의 순수함이 아직 그녀에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몽고반점을 잃었지만 그 태초의 순수함을 갈망하는 형부 같은 인물이 있는 반면, 과거에 몽고반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다.

퇴화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오로지 어린아이들의 엉덩이와 등만을 덮고 있는 반점. 오래전 갓난 아들의 엉덩이를 처음 만지며 느꼈던 말랑말랑한 감촉의 회열과 겹쳐져, 그녀의 한번도 보지 못한 엉덩이는 그의 내면에서 투명한 빛을 발했다.³⁰⁾

약간 멍이 든 듯도 한, 연한 초록빛의, 분명한 몽고반점이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³¹⁾

즉 식물 되기, 즉 식물성이란 몽고반점이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순수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혜가 발을 딛고

29) 경향신문, 「한강 ‘몽고반점’ 이상문학상 대상」, 2005년 1월 6일자.

30) 한강,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87.

31) 한강,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101.

있는 현실의 속성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다. 육식을 거부하는 영혜에게 가족들은 계속해서 육식을 강요하며, 아버지는 급기야 폭력을 휘두른다. 하지만 영혜는 끝까지 육식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식물성, 즉 순수함을 지키고자 한다. 여기에는 폭력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려는 영혜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세상의 폭력적인 질서와 타협하지 않고 원초적인 식물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혜의 의도는 후에 정신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물구나무 서기’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나무가 되고 싶다는 물구나무를 서는 영혜는 급기야는 육식뿐 아니라 식사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런 영혜에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 식사를 강요한다.

언니.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아.³²⁾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 아무도 없는 병실을 살피며 영혜는 말했다.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나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식물이 어떻게 말을 하니. 어떻게 생각을 해.

영혜는 눈을 빛냈다. 불가사의한 미소가 영혜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언니 말이 맞아... 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금방이야.

영혜는 크크, 웃음을 터뜨리고는 숨을 몰아쉬었다.³³⁾

결국 영혜는 동물적 속성으로 상징되는 일상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입을 닫고 자발적으로 식물이 되는 길을 택한다. 식물이 된다는 것은, 곧 모든 폭력적 질서가 사라진 생명체의 원시적 상황으로 퇴화함을 의미한다. 영혜는 동물적 속성에서 벗어나 생물이 되는 길을 자발적으로 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모든 폭력이 소멸된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 여자의 열매」와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서, 중심인물들의 고통을 상세히 시키는 것은 결국 식물이 되는 삶이다. 이전까지의 두 사람의 삶은 모두

32) 한강, 「나무 불꽃」,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175.

33) 한강, 위의 책, pp.186-187.

타인에 의해 강요된 삶이었으나, 식물로써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은 두 사람의 주체적 결정이었다. 한강은 이처럼 식물로 표상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원초적인 순수함을 통해, 길들여진 일상에서 탈출하여 주체적 생의 원동력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IV. 고통스럽지만 삶은 계속된다

한강의 소설들을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처’와 ‘고통’이다. 일상생활의 뒤틀림과 파괴를 통해, 그녀는 일상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삶의 이면에도 내밀하게 웅크리고 있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 으깨어지며 글쓰기를 통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처럼.

‘그전까지 나는 내 소설에서 살을 발라내고 싶어했었다. 침묵과 절제 속에서 나 무들의 흰 뼈 같은 정갈한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었다. 그 걸음을 돌려세운 것은 바로 그 악몽들이었다. 그 꿈들의 끔찍함은 다름 아닌 삶의 피비린내였다. 다시 한 번 돌아와 네 주먹을 부딪쳐 보라고, 얼굴을 짓기며 몸속으로 육박해 들어오는 고통과의 맞대면이었다.’³⁴⁾

서론에서 언급된 ‘으깨어짐’이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고통과 균열을 겪는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울의 정서로 형상화된다. 등장인물들은 과거 혹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그들 내면의 목소리는 수면을 뚫고 올라와 ‘겉보기에’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한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균열 틈으로, 한강은 그녀의 펜 끝을 따라 그 기원을 추적하고, 고통을 매개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인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으깨지고 고통 받는 피비린내 나는 날것의 삶의 모습은 작가가 소설을 쓰는 원동력으로써 기능한다. 우리는 한강의 소설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이 우울을 마주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과정은 궁극

34) 2005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 소감에서 인용.

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과도 같다.

나는 때로 다쳤다. 집착했고 욕망했고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배웠고, 점점 낮아졌고 작아졌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다. 오래, 깊숙이 들여다보려 애썼던 것 같다.³⁵⁾

한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인간 삶의 근원에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불행한 운명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시하고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모색한다. 타인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면서 현실에 모질게 직면하기도 하고, 아예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일상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일상을 파괴하고 모든 균형을 깨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생을 짓누르는 부당한 것에 대한 파괴를 통해, 또 다시 새로운 생의 원동력을 발생시키는 과정과도 같다.

「여수의 사랑」에서 정선은 자신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수라는 공간을 다시 찾아간다. 다시 찾은 여수에서 정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정선의 어깨를 후려치는 바람을 통해, 정선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여수라는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는 식물이 되고서야 비로소 남편과의 사랑과 자유로운 영혼을 동시에 얻는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는 스스로 식물의 삶, 더 나아가 속세를 벗어나 완전한 초탈의 경지에 다다른 삶을 갈망한다. 이러한 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시도로 비춰지지만, 영혜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자신을 짓누르는 사회적인 폭력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열쇠와도 같다. 생에 맞서는 인물들을 통해 한강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은 이와도 같다. 고통스럽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것, 우리는 그 고통을 깨고 또다시

35) 작품집 『내 여자의 열매』 작가의 말에서 인용.

생의 원동력을 얻고, 그 생의 원동력에서 또 다른 고통이 생겨나고, 이것이 다시 또 다른 생의 원동력을 낳는다. 이렇게 삶은 계속된다.

참고문헌

- 한강, 「여수의 사랑」,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 _____,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 _____,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강계숙, 「‘되삶’의 고통과 우울의 내적 형식」,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 김선희,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의 변화 양상」,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3.
- 심진경, 「산문적 현실을 비껴가는 시적 초월의 꿈」,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0.
-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한강 외, 『제2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5.
-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한강, 편혜영, 박형서, 김태용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 허운진, 「열정은 수난이다」,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황도경, 「짐승의 시간, 꿈꾸는 식물」,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 _____, 「푸른 꽃, 혹은 예술과 욕망의 시원」, 『제2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5.